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 찬반 논란

41억여원 들여 대양산단에 추진 “도시·치유농업 컨트롤타워 필요” “농업수요 줄고 재정여건 어려워”

목포시가 도시화 등으로 농촌지도소를 폐지한 지 26년 만에 기능이 유사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공공청사시설 부지 일대 2238㎡에 41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애초 2023년 대양동 옛 종합관광안내소 인근에 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토지매입 협의가 결렬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정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옮겼다. 오는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업

기술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스마트팜 견본실과 과학영농실, 사무실, 2층에는 다목적 교육장과 대강당, 소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시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등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 역할 부재와 관광농업 육성, 농업인과 농업 단체의 교육·정보시설 전무 등을 센터 건립의 이유로 꼽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도시화와 경지면적 축소 등으로 폐지했던 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 신도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다시 설립했으나 목포시만 하지 못했다”면서 “농업분야도 다양해지면서 농업기술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농촌지도소를 폐지한 후 지난 26년 동안 목포시의 농업수요는 더욱 축소됐기 때문이다. 농업인구는 물론 경지면적은 1998년 당시

1281ha에서 현재 404ha로 3분의 1로 감소했다. 또 이번 계획 중인 농업기술센터에는 핵심시설인 토양검정실, 미생물배양장과 스마트온실 등이 빠져 있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살릴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현재 연간 50건 정도의 토양검정 등 기술적인 부분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무상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수습역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육 목포시의회의 의원은 “핵심시설은 빠져 있고 교육장 등 강당만 짓겠다는 것이 이번 목포시의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취지”라며 “교부세 패널티로 목포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 타당성이 부족한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장봉성 기자 jbs@kwangju.co.kr

무안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농업 육성 속도낸다

애플망고 재배시설 4억여원 지원 공동마케팅·브랜드 육성 활성화

무안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아열대 농업 육성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17년부터 아열대농업 육성을 시책사업으로 지정, 현재 애플망고, 체리, 오코라, 룡민 등 아열대작물을 9개 사업체에서 재배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2년에 지원받은 청계면 소재 '망고랑' 농장에서는 15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애플망고를 본격적으로 수확해 시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시범사업' 수혜 농가로 선정된 '농업회사 농바람'에서는 3300㎡ 규모의 애플망고 하우스를 신축해 현재 약 1200주 애플망고 묘목을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하기 위해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무안군은 올해 애플망고 재배시설 2개소에 4억 5000만원을 지원해 아열대 농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 온라인 쇼핑몰인 '맛들무안몰'에 아열대작물을 추석 선물 대표상품으로 내세워 30% 할인 프



아열대 작물 공심재 재배 하우스.

로모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재광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기존의 시설지원은 물론 애플망고 농가의 상호 정보 교환과 과실

의 고품질화를 위한 연구회를 조직·활성화하고 공동마케팅과 브랜드 육성 등 다방면의 지원을 확대해 농가소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솔라리그' 태양광 보급 우수지자체

보급량 전국 지자체 압도적 1위

신안군이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1인당 태양광 보급량이 3kW를 초과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보급량을 기록해 태양광보급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독일의 솔라분데스리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2019년을 시작으로 6회째를 맞고 있다. 대회의 취지는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을 선도하고 있는 신안군은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 이후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3년 환경부 장관상에 이어 2024년에는 태양광보급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1인당 보급량이 3kW가 넘어 전국 지자체 중 압도적인 보급량을 기록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완도군, 3년 연속 '책 읽는 지자체 대상' 수상

독서 치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이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주관의 '제9회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독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책의 소중함과 책 읽는 즐거움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는 우수 기관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고 있다. 완도군은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올해까지 수상하며 독서 문화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또 인정받았다.

군은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작가와의 만남,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독서 한마음 대회 개최와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이전,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독서가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치유 도시답게 독서 치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독서 문화 기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해수청, 추석 연휴 대비 항로표지 점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안전한 여객·물류 수송을 돕기 위해 바다의 신호등인 항로표지 시설 특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3일까지로 해남과 완도 해역의 선박 통항량이 많은 횡간수도와 연안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한다. 야간에 선박을 이용해 각 항로를 돌며 등명기의 점멸상태와 시인성을 확인하고 기능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익일) 부품을 교체해 항해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해상교통량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 운항을 당부드리며 항로표지 기능 이상이 발견되면 진도항행정보시스템사무소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횡간수도통항분리등부표.

해남군, 추석연휴 남도광역추모공원 정상 운영

추석 당일 화장업무는 중단

해남군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 14-18일 남도광역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추석 당일 화장업무는 중단된다. 또 연휴기간 동안 봉안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해 추모를 위해 시설을 찾는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8연휴기간 추모공원 전 직원 비상근무와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남도광역추모공원은 날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에 맞춰 해남, 진도, 완도 3개군 연계 협력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개원했다. 지금까지 화장 1만7359건, 봉안당과 자연장 안치 5691건 등 서남권 장례문화를 혁신하는 선도적인 장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명절 기간동안 이용객들이 어려움 없이 추모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장사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9월호

2024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좋아하는 마음' 덕질 예찬

“팍팍한 현실에 생기 주는 ‘어덕행덕’
“덕질하는 사람들 ‘나에게 덕질은?’
“‘덕후 모여드는 취향 도시 꿈꾸요’ 덕질살롱 기획 정두용 감독

산이정원 달마고도 땅끝워크

한국의 누정④-철송정
고봉의 학통과 정신 계승한 공간
일곱 그루 소나무 심어 절개 상징

광초(狂草)로 그려낸 '원교(圓嶠)'라는 자화상

- 원교 이광사 -

에향 초대석

『옛 그림으로 본 조선』 연작 퍼넨 미술사학자 최열
“조선은 화가와 자연이 하나된 실경의 나라”

에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⑨
두 발로 만나는 남도풍, 행복한 이상 전남 맨발 걷기 명소

문화시민으로 살아가기⑨-시민자유대학
인문학에 목마른 시민들 모여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학교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⑩
‘핵’의 평행선에 무한 영원을 담은 기하추상 대가 이승조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남량물 영화의 변화, 공포보다 재난이 더 시원·통쾌하다